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굿네이버스,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150만 달러 규모 상향

글로벌 아동권리 NGO 굿네이버스가 우크라이나 아동과 난민 지원을 위해 총 150만 달러 규모로 긴급구호를 진행한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아동과 난민 지원을 위해 초기 30만 달러 지원에서 상향하여 총 150만 달러(한화 약 18억 원) 규모로 긴급구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미국법인인 우크라이나 긴급구호를 위해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원금을 모으는 한편 우크라이나 아동과 난민을 돕기 위한 시민들과 교회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글로벌 파트너십센터(총장 최민호)를 중심으로 긴급구호 대응팀을 꾸려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루마니아에 파견했다. 한국인이 포함된 긴급구호 대응팀은 현재 국경 지역인 루마니아 갈라치(Galati)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역 정부 및 현지 NGO와 협력하여 긴급구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굿네이버스는 우크라이나 내부로 밀가루, 옥수수, 식용유 등이 실린 식량 트럭을 들여보내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지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굿네이버스가 우크라이나 내 난민에게 지원할 긴급구호 물품 ©굿네이버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생존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긴급구호를 펼쳐나가겠다”며, “굿네이버스는 우크라이나 아동과 난민이 어디서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역사회, 국제기구 등의 파트너십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보호단체로서 우크라이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여성 및 아동 보호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폭력 및 무력 분쟁으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미성년 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신변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주체가 국제 인도법과 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하에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Odessa), 레니(Reni) 지역의 난민 2,000가구 대상으로 1차 긴급식량을 배분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안전한 이동도 지원한다. 12일부터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를 오가는 버스 2대를 지원하여 하루 최대 100명의 난민이 루마니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분쟁을 겪은 아동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임시 대피소에 아동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심리사회적지원(PSS: Psychosocial Support)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15기 목회자 아버지학교 개강



제15기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5월15일(주일)부터 17일(화) 그리고 22일(주일) LA 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 743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에서 열린다.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아버지 학교는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되며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명 등을 주제로 박세현 목사, 국윤권 목사, 이정엽 목사, 권준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등록비는 150달러며 아버지학교 수료자 추천 시 장학금이 지원된다.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는 성요셉 목사는 “성경적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임을 깨닫고 가정의 연합과 하나됨을 배우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초대의를 말했다.

문의 성요셉 목사(818-331-2481) 김동욱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 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최고 선택 기준'은?
 바른 고검,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법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럽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얼바인 침례교회 제 5대 담임목사 권태산 목사 취임 감사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얼바인 침례교회는 권태산 목사님의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와 격려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2년 3월 27일(주일) 오후 4시
장소 얼바인 침례교회 본당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권태산 목사 담임 목사 소개

교육: Southwest Baptist University (Bolivar, MO, BA)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t Worth, TX, M.Div)
목사 안수: 빛과 소금의 교회 (Dallas, Texas)
섬긴 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Joy Fellowship 교회, LA 한인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의 교회, 올림픽교회, Reset 교회

예배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EM 예배: 오전 11시

새벽예배
 오전 6시 (화 - 토)

수요 모임
 제자 훈련: 저녁 7시
 목자 모임: 저녁 8시 30분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얼바인 침례교회
 IRVINE BAPTIST CHURCH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949)857-9425 www.irvinechurch.com

2022 밀알장애인지학복지금, 총 84명에게 10만4천200달러 전달

2022년도 밀알장애인지학복지금 수여식이 지난 12일,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담임목사)에서 열렸다.

지난 해에는 코비드 펜데믹으로 장학금 수여식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 수여식에는 장학생과 가족, 친지들이 참여해 기쁨이 두 배가 됐다.

올해 수여된 장학금은 작년 12월 개최된 '2021 밀알의밤'을 통해 마련됐다. 장학금 수여식은 이역히 남가주밀알 이사장과 심상은 부이사장, 이은철 목사, 이정수 위원장, 이종희 단장, 그리고 이준수 목사의 인도로 미주장애인지학학생 4명,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5명, J&J 장학생 2명, James Worldwide 장학생 10명, Moon Foundation 장학생 10명,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생 10명, 제3국 및 중남미 장학생 20명, 긴급지원 대상



2022년도 밀알장애인지학복지금 수여식

추가 기금 20명 등 총 84명에게 10만4천2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로써 밀알장애인지학복지금이 처음 출범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274만 8천200달러에 이른다.

이정수 남가주밀알 행사위원

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남가주밀알 찬양팀의 찬양과 '밀알 스토리' 영상 상영으로 이어졌다. 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양희원 교수가 기도했으며 남가주밀알부이사장 심상은 목사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사야 43: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심상은 목사는 "비록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이 늘 함께하시니, 크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 것이라고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형상

에 따라 귀하게 창조되었으니,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공부해 장차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훌륭한 일을 감당하기 바란다"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은 장학생 정요한 학생이 특송, 남가주밀알 이종희 단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이은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종희 단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밀알의밤을 적극 성원 해주셔서 풍성한 장학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후원자님들, 교회, 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장학금을 받게 된 84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하며 보다 큰 소망과 비전을 지닌 채 학업에 정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정서적 건강과 관계의 깊이, 영적 성숙의 제자훈련에 답하다”

산타페 상담소 제1회 독서치유 모임 개최, 오는 31일부터 8주간

제1회 산타페상담소 독서치유모임

독서치유 모임이란? 치유와 성장에 관한 책을 읽고 느낀점 또는 개인적 발견이나 적용점을 그룹에서 나누고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정서적, 인격적 성장을 추구하는 치유적 모임입니다.

선정도서	모임인도
<p>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p> <p>피터 스카지노 목사 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p>	<p>산타페 상담소 김경준 소장 (미주정신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임상심리학 박사)</p>

제 1회 독서치유 모임에서 선정한 도서는 뉴욕에 위치한 뉴 라이프 펠로우십 교회의 피터 스카지노 목사가 저술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이며, 가까운 기독교 서점 또는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다.

독서 치유 모임을 인도할 김경준 교수(미주장신대, 임상심리학 박사)는 “정서적인 건강과 관계의 깊이, 그리고 영적 성숙을 연결 짓는 제자 훈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모임을 통해 참가자들이 전인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이메일 santafecounseling21@gmail.com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전액 산타페 상담소 운영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562-912-3800으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산타페 상담소(소장 김경준 교수)가 제1회 독서 치유 모임을 개최한다.

독서 치유 모임은 치유와 성장에 관한 책을 읽고 자신의 느낀 점 또는 개인적 발견이나 적용점을 그룹 모임에서 나누며, 인도자 및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정서적, 인격

적 성장을 도모하는 치유 모임이다.

첫 모임은 오는 31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줌(Zoom) 실시간 온라인으로 갖게되며, 5월 19일까지 총 8주간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참가비는 100달러.

정요한 목사,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수상 감사예배 드려



정요한 목사 성역 40주년 및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수상 감사예배

정요한 목사가 자신의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수상을 기념해 지난 6일, 제이제이그랜드호텔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는 정 목사의 목사임직 35주년, 성역 40주년도 함께 기념하는 자리였다.

정요한 목사는 민주평통 LA협의회에서 종교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신년조찬기도회를 비롯한 공공외교와 평화통일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예배에서 엄규서목사 사회로 평통 본국상임위원인 장병우 장로가 기도한 후, 한기부 미주총회장 지용덕목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축복”(마 25:2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전 평통 LA협의회 회장 서영석 장로와 평통 LA협의회 이정현 전문위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진복일 찬양사역자가 축가로 자리를 빛냈다.

김동욱 기자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교수진		초청 강사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글로벌 침례신학대학교 'Re-Vital' 온라인 프로그램 런칭

글로벌 침례 신학대학교 (이하 GBTIS)가 Online Program 을 개설한다.

'Revitalization (재활성화)' 을 의미하는 Re-Vital Online Program은 그 이름에 걸맞게 목회자와 교사들의 사명을 되살아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Re-Vital Online Program은 과목당 15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수업은 수강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Real-Time) 으로 수업에 참여 할 수도 있고, 녹화된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도 있다.

또한 자칫 수업 참여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녹화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담당 교수는 퀴즈나 토론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학생을 1:1로 지도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프로그램

의 학업 성취도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윤유종 학장은 '영혼구령을 위해 부름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경민 교수 (디렉터)는 '본 프로그램은 현학적이거나 사변적인 신학 교육이 아닌 실제 사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학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지식을 토론과 실습을 통해 익히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GBTIS는 그동안 달라스 지역의 신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앞장 서왔다. 2022년 5월에 시작되는 여름 학기는 설교학, 신약학, 그리고 윤리학이 개설된다. 설교학

글로벌침례신학대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e & Seminary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GBTIS의 Re-Vital Online Program 은 이렇게 다릅니다.

01. 목회자 및 교사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신학적인 Resource**를 제공합니다.
02. **실시간과 녹화 수업 (Asynchronous Learning)**을 병행한 탁월한 강의와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학업 성취도를 극대화 합니다.
03. 담당 교수는 모든 학생들의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언제든 1:1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 되어 있습니다.

신약학
홍순기 교수
(Ph.D., Dallas Theological Seminary)

설교학, 윤리학
서경민 교수
(Ph.D.,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학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설교 작성법과 한국과 미국의 유명 설교학자들과의 Q & A, 신약학 수업에서는 헬라이어 강독과 성경 프로그램 활용법 강의, 윤리학 수업에서는 현대 교회가 직면한 각종 사회문제 등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등록 과정에 따라 AD, BA, MRE, M.Div와 같은 정식 학위가 수여되며 사역인증서 (Certification of Ministry)가 발급된다. Re-Vital Online Program 에 대한 정보와 등록은 GBTIS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와 상담은 프로그램 디렉터 서경민 교수에게 이메일 aurahelio@gmail.com 혹은 전화 508-826-5145 로 할 수 있다.

수업에서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 (Text-Driven Preaching) 철

“이제는 모이자!” 원하트 워십 찬양 집회 개최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집회를 가져온 원하트 미니스트리가(Oneheart Ministry, 대표 피터 박 목사, 이하 원하트)가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으로 현장 예배를 시작한다.



원하트는 오는 26일(토) 오후 7시, 부에나팍 교회(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에서 현장 집회를 갖고, 남가주 지역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의 목마름을 채울 계획이다.

원하트는 또 4월부터 화요 모임을 재개하고, 멤버 모임으로 더욱 활발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피터 박 목사는 “찬양과 예배를 사모하는 분은 누구나 오실 수 있다”며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성령의 입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원하트는 팬데믹 기간 소규모 교회를 위한 사역에 집중해 왔다. 온라인예배가 질실하지

만 여건이 충분치 않은 교회들의 미디어사역을 도왔고, 작은 교회들을 위한 온라인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는데 힘쓰며, '레이블원하트'를 통해 음원 발표 사역도 진행해왔다.

원하트 워십과 관련한 문의는 myoneheartministry@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얼바인 굿네이버스커피,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후원 캠페인 펼쳐

남가주 얼바인의 한인운영 커피회사가 글로벌 NGO 구호기관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조엘 오 대표가 운영하는 굿네이버스커피는 피스 블렌드 (Peace Blend)라는 커피빈 판매 수익금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기부하고 있다.

굿네이버스커피는 굿네이버스의 자선, 구호 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시작된 사회적 기업으로, 커피 판매와 카페 운영을 통해 굿네이버스를 후원하고 있다. 오 대표는 전미 콜드부루 챔피언으로 선정될 정도로 커피 전문가다.

굿네이버스는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에 있는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한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굿네이버스커피 캠페인을 통한 수익금 역시



굿네이버스를 통해 긴급구호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커피 구입은 굿네이버스 커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조엘 오 대표는 우크라이나와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 오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20여년간 선교사로 사역한 정한규 선교사의 사위로, 정 선교사

는 현재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루마니아에 임시거처를 두고 루마니아로 피신중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다.

굿네이버스 커피를 통한 우크라이나 돕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949-660-0020 이메일 richard@goodneighbor-scoffee.com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을 몰아내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복음통일선교도서의 편지자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서울대 명예교수), 주성호(고려대 명예교수), 이종희(고려대 명예교수), 송경원(서울대 명예교수), 권준호(서울대 명예교수), 신정민(서울대 명예교수), 유영진(서울대 명예교수), 김진호(서울대 명예교수)

책의 특징: 목회자, 목회자, 목회자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동영상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한국 헤민병원 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 쿠폰구입
\$28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종합건강센터 **이성수** 소장

자세한 내용은 **213.668.4781** 로 문의해 주세요.

■ 박광철 목사의 영성 개발

“영적 전쟁의 사실”

1) 사탄과 그의 공격은 실제적이다.

영적 전쟁은 결코 가상적이거나 허구가 아니며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치는 싸움이다. 예를 들어서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귀신들린 자”들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해야 회복하는가? 마약 중독과 성 중독, 알콜 중독 또는 도박 중독 같은 것을 어떻게 단절할 수 있는가? 나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끈질긴 악습관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깊은 악습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개입하셔야 한다.



박 광 철 목사
솔트하우스선교회 대표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요일 3:8). 마귀의 최후의 무기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표시이다.

2)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며 마귀의 관한 책이 아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만 아니라 마귀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딤후 3:16).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들이다. 일부 전도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싸여 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

3) 하나님은 원수들도 통치하신다.

성경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한다 (엡 2:2). 사탄은 능력이 많아서 많은 횡포를 하지만 전능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후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시며 그의 뜻대로 운행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이다.

창세기에서 (3:15)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될

5) 사탄은 주의 재림 때까지 쉬지 않고 공격해 올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직전에 그를 시험한 후에 잠시 떠났지만 계속해서 성도를 유혹하고 죄를 유발하는 사탄은 예수의 재림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는 영원한 무저갱으로 빠질 것이며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그때까지 성도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고 그를 대적해야 한다 (벧전 5:9). 우리도 신앙 생활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6) 영적 싸움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경험한다.

사탄이 공격하는 분야에는 제한이 없다. 우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며 죄의식과 의심에 빠지게 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게 유혹한다. 또한 우리의 신체를 공격하여 질병에 빠뜨리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며 나라들 사이에 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사탄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한 해변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갈릴리 공생애(共生涯)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마 9:1~2; 막 2:1~5).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도로가 발달된 가버나움은 번창하는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도 성행했습니다. 아울러 가버나움 근교의 농업도 발달해 가버나움은 종합적인 경제 도시였습니다.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훔의 마을’입니다. 여기서 나훔은 구약 예언서의 저자 나훔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나훔은 가버나움을 세운 사람이거나 가버나움 출신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훔의 마을’입니다. 여기서 나훔은 구약 예언서의 저자 나훔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나훔은 가버나움을 세운 사람이거나 가버나움 출신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환영 받지 못하자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가버나움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공생애 사역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습니다(마 4:13).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아울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불러 따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신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마태의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지만 그들의 고향은 벳새다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은 다섯 제자들과 그 가족들이 가버나움에 기반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자신의 동네(Lord's own town 마9:1)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버나움에 가장 오래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다양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가

며 폐허가 되었습니다. 7세기에 다시 큰 지진을 경험하며 한번 더 망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은 재건되지 않고 한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고 십자군 전쟁이전에 도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던 가버나움은 1838년 미국의 탐험가 에드워드 로빈슨이 폐허로 변한 가버나움을 발굴하였고, 1894년 작은 형제회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헬라어로 ‘베드로’가 새겨진 풋말과 어선의 그림을 발견하였습니다. 1920년 이후에 기독교의 성지로 발굴되고 기념 예배당과 같은 건물이 건축되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농업, 어업 그리고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아울러 가버나움은 무역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벳길과 육지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해변 고속도로(Via Maris)’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대로 ‘해변 고속도로(Via Maris)’는 이집트에서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무역 도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활발한 경제 활동과 상당한 교통량이 있어서 지역의 산업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로마의 세관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가 그곳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 9:9).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가버나움은 기록에 의하면 로마군의 파견대가 주둔했었고 로마군 장병들의 숙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나름대로 탁월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로마로 직접 연결된 도로가 있었고, 유대 땅에서는 특이하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내는 상당한 규모의 다문화 국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e & Seminary

29년 전통의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e & Seminary는 워싱턴 신학대학교 및 Baylor University, George W. Truett Seminary와 학사 협정을 맺고 각종 학위(AD, BA, MRE, M.Div)와 사역 인증서 (Certification of Ministry)를 수여 합니다.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GBTIS의 Re-Vital Online Program은 이렇게 다릅니다.

- 01. 목회자 및 교사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신학적인 Resource**를 제공합니다.
- 02. **실시간과 녹화 수업 (Asynchronous Learning)**을 병행한 탁월한 강의와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학업 성취도를 극대화 합니다.
- 03. 담당 교수는 모든 학생들의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언제든 1:1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 되어 있습니다.



신약학
홍순기 교수
(Ph.D., Dallas Theological Seminary)



설교학, 윤리학
서경민 교수
(Ph.D.,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2022 여름학기 개설과목

본문이 이끄는 설교(입문)

“나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설교는 말씀 전하는 모든 이들의 특권인 동시에 고민이기도 합니다. Re-Vital Online Program 설교학 과목은 수강생이 본문이 이끄는 설교 철학과 방법론을 익혀 사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유명 설교자 및 설교학자를 초청하여 Q & A도 진행하여 여러분이 더욱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날짜: 5월 12일~8월 18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CST, 중부 표준시)

성경 헬라어 연구 1

본 과목의 궁극적 목표는 수강자가 헬라어의 기초를 세우고 스스로 원문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배웠던 헬라어를 기억해 내고 싶은 목회자와 성경 원어 연구에 입문하는 신학생 및 교회 지도자 모두를 초청합니다. 수강생은 성경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더욱 깊고 효과적으로 본문을 연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에 설교자와 교사들이 올바른 언어적 접근으로 저자의 의도를 들여다 보는 관점을 갖도록 도와 드립니다.

날짜: 5월 10일~8월 16일 매주 화요일 오후 5시~7시 (CST, 중부 표준시)

성경과 현대 윤리적 이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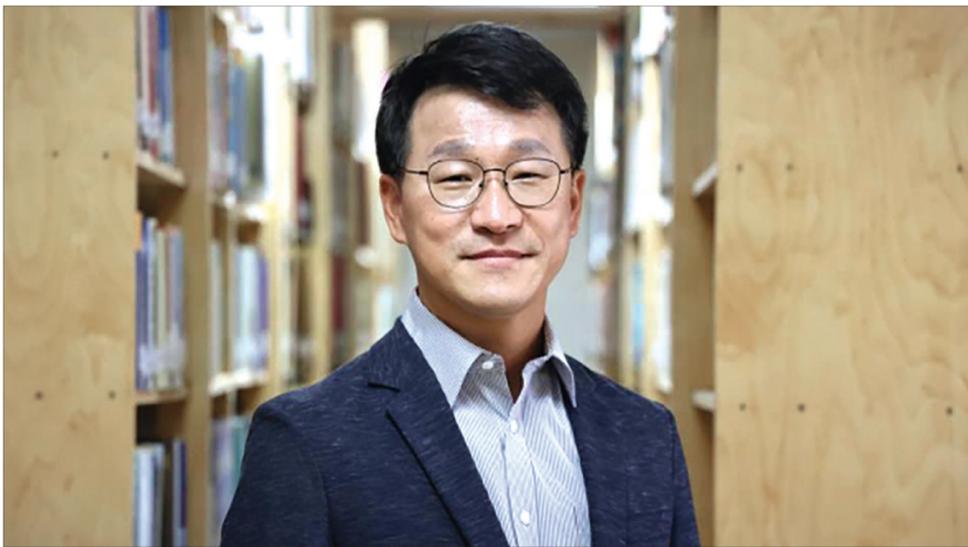
21세기 교회는 사회에 편만한 비 성경적 가치관으로 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성도들에게 윤리적 이슈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본 과목은 현대 교회가 마주한 동성애, 낙태, 사회정의,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이혼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답을 제시 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세속적 사조와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각 교회에 증언 하기를 바랍니다.

날짜: 5월 12일~8월 18일 매주 목요일 오후 5시~7시 (CST, 중부 표준시)

[인터뷰] '온라인 사역 혁명: Re-Connect'의 이상훈 교수

“온라인, 복음 전달의 기회가 가장 활짝 열린 공간”

이상훈 교수(AEU 미성대 총장)의 <온라인 사역 혁명: Re-Connect>가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는 사역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됐다. 또한 그는 현시점과 포스트 코로나 목회에 대한 연구와 생각을 담았다. 이 교수와 서면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그 일문일답.



'온라인 사역 혁명'의 저자 이상훈 교수 ©교회성장연구소 제공

Q. 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 교회는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사역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 온라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변화로 인해 온라인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철학이나 방향성,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미 10~15년 전부터 시대 변화를 읽고 온라인 교회 혹은 온라인 사역을 시작한 교회들이 있었지요.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교회들은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한 모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온라인 사역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들을 연구하고 이것들을 묶어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Q. 온라인 사역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 사역의 핵심 포인트는 사역 공간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온라인 사역을 온라인 예배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바로 온라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삶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졌습니다. 온라인은 일

종의 취미생활을 하기 위한 장소였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취미뿐 아니라 일, 학업, 인간관계, 자기 개발 등 모든 것들이 온라인에서 이뤄집니다. 삶의 공간 뿐 아니라 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이곳에서도 사역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은 일차적으로 성도들을 위한 신앙 성장과 성숙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나아가 비신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라인을 활용해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공동체에 속해 신앙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책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접촉점을 만들어 내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 신앙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사역의 핵심부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A. 온라인 사역의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책에서 계속 강조하였지만, 온라인 사역은 그 공간을 '선교지'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회심 성장 또한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를 멈춘다면, 그곳은 가장 중요한 존재론적 목적을 상실한 모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은 선교적 기회를 교회에 제공합니다. 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노출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와 언어, 종교와 신념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가장 세속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복음 전달의 기회가 가장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분명해 지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사역을 단지 예배 송출의 기술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

습니다. 온라인 사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 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소명과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살아내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가 많아져야 합니다.

Q.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책에서는 7개의 모델을 다뤘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새들백 처치(Saddleback Church)는 온라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온라인으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됩니다.

라이프 처치(Life.Church)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 할 수 있지요. 30개 이상의 멀티 사이트 캠퍼스로도 유명하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15년 전에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 이름을 '라이프 닷 처치(Life.Church)'로 바꾸었습니

다. 모든 체질을 온라인화한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플랫폼을 사용해 접속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예배 이후 이들을 신앙 공동체로 이끌고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노하우를 다른 교회들을 돕기 위해 활용합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회 플랫폼과 전 세계 거의 모든 성경 버전을 디지털화해서 한 곳에 모아 놓은 유버전(YouVersion)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자기 교회에서 만든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나눕니다. 성인 자료 뿐 아니라 청소년과 어린이 사역, 각종 매뉴얼과 소그룹 교재 등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지요. 그야말로 온라인 생태계 형성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선교하기 위해 교회를 모바일 앱으로 옮겨 놓은 처치홈(Churchome)의 경우도 놀랍습니다. 앱을 통해 말씀과 기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상상을 해 보셨나요? 그것도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말이죠. 이 교회는 바로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앱을 통해 기도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모델을 보여 줍니다. 당연히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수많은 사람이 영적 도움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SNS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엘리베이션 처치(Elevation Church)의 모델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사역을 하는 모델도 있고, 작은 신앙 공동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며 능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프레스쉬 익스프레션스(Fresh Expressions) 모델도 꼭 참조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승연 기자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의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파크,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리스팅 전문.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케를리. Cell 714.345.4989.

2022 효사랑 제9회 미주 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HYO' (Filial Piety) Writing & Art Contest.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가정의 통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가정의 있음에 배우고 성경적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참가 방법_How to Entry. 주제 (Theme)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자랑 한다면?" (ex. 예배하는 가정,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가정,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 How faith and God is shown through your family's daily life. 대상 (Participants) : Kindergarten ~ 12th grade. 참가비 (Entry Fee) : \$20 (per work). 제출방법 (Submission Information) : 우편, 방문 혹은 E-mail(글짓기에 한함). 제출 및 문의 (Contact) : 효사랑 선교회(SBC) (714-670-8004 or 562-833-5520)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E-mail: hyosarangus@gmail.com www.hyosarangusa.org. 시상식 Award Ceremony Saturday June 18, 2022(2pm). Grand Prize (2) \$500. 1st Runner-up (4) \$300. 2nd Runner-up (6) \$200. HAVEN Scholarship (11th grade only). 장소 추후 공지 Place TBD.



윤석열 당선인, 5년간 공식이던 '북한 인권 대사' 임명

북한인권 문제 개선 기대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직후 5년간 공식이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 현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던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VOA와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현 정부에서 사문화한 '북한인권법'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취임 후 바로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정훈 초대 대사가 2017년 9월 자리에서 물러난 뒤 문재인 정부 5년간 새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북한인권대사는 외교부 장관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대

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 조항들을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2020년 12월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이뤄지는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도 공약사항으로, 재개가 기대된다. 현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공약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법에 정해진 대로 이사를 추천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지도를 받으며, 대북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권 증진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한다. 20·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그간 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VOA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는 북한 주민들의 문제임에도, 미국 NED(민주주의진흥재단)나 국제사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는 이런 현실도 사실은 부끄

러운 일"이라며 "북한인권대사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 실상을 유엔에서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 서울신대에 장학금 4천만원 전달

서울신대는 백송교회(이순희 목사)가 서울신학대학교(황덕형 총장, 서울신대)에 장학금 4천만원을 후원하는 전달식을 16일 서울신대 총장실에서 개최했다.

서울신대는 "2001년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와 백송영성수련원에서 시작된 백송교회는 '잠재력의 문을 열고 빛을 발하라!(사 60:1)' 라는 비전으로 영혼육의 병든자들을 치유하는 사명과 제자 양성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제자 양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며 서울신학대학교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있으며, 2020년 후원을 시작한 후로 장학금과 대학발전기금 후원금이 약 1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순희牧사는 "하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한다"며 "교회의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좌)가 황덕형 총장(우)에게 장학금 4천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신대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순희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영성수련원 원장, 기독교생활영성연구원 원장, 찬양 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황덕형 총장은 "꾸준히 서울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후원해 주심에 대학 총장으로서 감사드린다"며 "예비 목회자들이 쓰임 받는 일꾼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조성에 학교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노형구 기자

법원 "전광훈 목사, '문재인은 간첩' 발언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전광훈 목사(국민혁명당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자유 우파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뭉쳐야 한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 간첩이자 공산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던 것 등으로 인해 각각 기소됐고, 이로 인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두 차례 옥고도 치렀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집회 발언은 우파 전체에 대한 추상적인 지지일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황교안 개인을 비롯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에 대해서도 "전 목사는 본래적 의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로서 해당 표현을 사용해 '사실 적시' 보다는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의견이 논리 비약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시애틀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NOW OFFERING

IB PYP(K~5TH) • MYP(6TH~10TH)
DP(11TH~12TH)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C



Now Enrolling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Est.1999

e-nca.org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자세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인2세를 책임지며, 이인2가정을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19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평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어 할게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323) 897-5751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디오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령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상.중.고)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도회/가정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미 아이다호 '낙태금지법'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2020년 1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0년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낙태 반대 시위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Christianpost

미국 아이다호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상원 법안 1309호'로 알려진 이 법안은 아이다호 하원에서 찬성 51표, 반대 14표로, 기권 5표로 통과됐으며, 이달 초 상원에서 찬성 2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텍사스주가 시행하는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과 마찬가지로 임신 6주차 이후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들을 고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1년 항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직권 발동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아이다호주 브래드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낙태 환자의 가족 구성원은 낙태 시술 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은 낙태 시술 과정에 도움을 준 이들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아이다호 법안은 낙태 제공자에 한해 소송이 가능하다.

아이다호 가족정책센터(IFPC)는 성명에서 이 조치가 매년 약 1,000명의 아기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블레인 콘자터 IFPC 회장은 "브래드 리틀 주지사가 심장이 뛰는 태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다호 심장박동법에 대한 이 개정안은 헌법적, 과학적, 도덕적으로 타당하다. 이와 유사한 텍사스 법은 연방 법원에서 여러 법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면서 "법률이 제정되면 다가올 법적 문제를 극복하고, 태어날 아기를 구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낙태 옹호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아이다호 지부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보장하는 낙태 서비스 접근권을 위협하고,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달 11일 텍사스 주 최고 법원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에 대해 주 공무원이 법안을 집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법 시행 중단을 요구한 낙태 업체들의 소송은 기각되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대부분 금지한 미시시피 주의 낙태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 중이다.

김유진 기자

美 성인 38% "종교가 국가를 강하게 만든다"



노동절인 지난 7일 길거리 예배가 진행되던 모습. ©Sean Feucht Facebook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은 "종교가 국가를 강하게 만든다고 믿는다"고 대답했다. 종교가 국가를 약하게 만든다고 대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 미만이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입소스와 감독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미국 안의 예수'(Jesus in America)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38%가 "미국의 종교는 국가를 강하게 만든다"고 답했으며 이는 가장 인기 있는 응답이었다.

또 28%는 "미국의 종교는 국가를 분열시킨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20%는 모른다고, 7%는 "효과가 없다"고 했다. "종교가 국가를 약하게 만든다"고 믿는 사람은 6%에 불과했다.

성공회(The Episcopal Church)와 입소스(Ipsos)는 지난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미국 성인 3,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2.0%의 오차범위를 나타냈다.

"종교가 국가를 분열시킨다"고 한 응답자 중 기독교인은 21%, 타종교인은 38%, 비종교인은 50%였다.

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1%만이 "지난 2021년 1월 6일 국회

의사당 시위가 조직화된 종교와 관련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63%는 "당시 시위가 종교와 관련 없다"고 했으며, 25%는 "모른다" 혹은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1월 6일 시위를 종교와 연관시킨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시위가) '복음주의 또는 개신교 기독교'와 연관되었다고 대답했다. 기독교인 응답자의 50%와 비기독교 응답자의 76%가 이 견해에 동의했다.

이 연구는 또 1996년 이후 태어난 2세대 미국인이 1981년에서 1996년 사이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Y세대)보다 비종교적일 가능성이 약간 낮다고 보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2세대 응답자의 24%가 비종교적이라고 답한 반면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28%가 같은 대답을 했다. 대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12%와 X세대의 18%는 자신을 비종교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9년 11월 발표된 퓨리서치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종교가 사회에 해를 끼치기보다 더 유익하다"고 믿는다고 했고, 20%는 "이로운 것보다 해를 끼친다"고 믿었다.

강혜진 기자

미 남침례신학교 총장 “러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야”

미국 남침례신학대학(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총장이 기독교인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가짜 뉴스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알버트 모홀러 미국 남침례신학대학 총장은 11일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브리핑’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객관적인 현실이 참으로 현실이며, 궁극적으로 알 수 있다는 데 근거한다”고 말했다.

모홀러는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산부인과 및 어린이 병원을 폭격한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러시아가 “당신이 보는 것을 믿지 마라. 모든 증거도 믿지 말고, 비디오도, 사진들도 믿지 마라. 우리를 믿어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미디어가 “우리가 가진 것이 경쟁적인 이야기(narratives)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렇지도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실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것은 사실이고 객관적인 현실이다. 관건은 어떤 이야기가 사실, 즉 역사적 사건을 정확히 묘사하는가에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프란시스 슈퍼의 말을 인용, “그는 기독교들에게 끊임없이 공간, 시간과 역사,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끊임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했다.

또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 곧 진리를 합당하게 구하는 사람들로써 진실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인생은 단지 이야기와 싸우는 문제가



알버트 모홀러 총장 ©크리스천포스트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분명히 이야기에 의해 치명적으로 만든 전쟁이 아니다. 총알, 폭탄, 로켓에 의해 치명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사실”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흐르고 있으며, 소위 가짜 뉴스인 선전, 왜곡의 기회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 편으로는 지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실이 알려지고, 현실의 부정이 결국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회”라고 밝혔다.

15일 AP통신에 따르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한 주된 이유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16일 미 정보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러시아군의 사망자가 3주 동안 약 7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강혜진 기자

“성경적 세계관 결여된 부모, 자녀의 영성 부족 초래”



©Aaron Burden/ Unsplash.com

미국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 문화 연구센터(CRC)가 미국의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결여되어 있고, 이는 청소년의 영적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 바나 CRC 연구소장은 지난 주 발표한 ‘미국인 세계관 인벤토리 2022(American Worldview Inventory 2022)’의 1차 보고서가 분석한 ‘미국인 부모의 세계관 딜레마’에 대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국인 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총 8개의 범주 안에서 세계관에 대한 신념과 행동을 측정했다.

조사에서 1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67%가 기독교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중 연구진이 정의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부모는 4%에 불과했으며, 2%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성경적 세계관을 ‘성경을 삶에 대한 적합하고 권위 있는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정의했다.

설문에 응한 부모 10명 중 6명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 신뢰할 만한 정확한 출처로 보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4명은 성경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본다’고 답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가능성이 가

장 높은 부모 집단은 ‘독립교회 또는 비종파적 개신교 교회(16%)’를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부모의 비율은 주로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 혹은 자신을 ‘신학적 문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거나 ‘낙태나 동성 결혼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1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부모는 ‘보수적 정치 성향(9%)’이거나 ‘거듭난 기독교인(8%)’ 집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자 중 22%는 자신을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답했으며 19%는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답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가능성이 가장 낮은 그룹은 ‘가톨릭교회 출석자’, ‘자유주의 혹은 진보적 정치 성향’이거나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비율이 극히 낮은 데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미국 내 영적 부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화를 바꾸는 운동이 2%도 안 되는 인원으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헌신의 부족을 되돌리는 것은 미국에서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없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침례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관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일침례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OC예배 주일예배 오전 8:15, 금요일예배 오전 7: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2331 W. Granddunes Ave., Fullerton, CA 92832
19514 Resali St., Northridge, CA 91321 (818)853-5853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경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CM침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침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장미안침례회 오전 11:30, 영어침례회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대학침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요일예배 매일 주일 4부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벤엘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토) 주일 9:00am, 2부예배(토)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일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혁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요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15, 한여부 오후 1:00, KM대학침례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월요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기용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라자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dailya@gmail.com

英 우크라 난민 정책, 범죄 악용 우려

숙박 제공 시민들에게 월 약 56만 원 지원

영국 정부가 각 가정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정책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13일 우크라이나를 위한 집(Homes for Ukraine)이라는 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영국에 친인척이 없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입국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방이나 집을 6개월 이상 제공하는 시민들에게 월 350파운드(약 56만 원)를 지급한다.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 '케어'(CARE)는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이 제도가 잠재적으로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케어의 인신매매 책임자인 로렌 애그뉴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집" 계획은 동기부여가 잘 되

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난민들이 현대판 노예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빠르게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잠재적 호스트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험 신호가 누락될 수 있다"며 "이 계획의 무게를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에 머무는 난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애그뉴는 "최근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는 최소 6,000명에서 8,000명의 '현대판 노예' 범죄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영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취약한 개인들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리비우 시내 전경 ©Tymoshenko Pavel 유튜브 영상 캡처

우려했다. 이어 "난민들이 영국 전역의 집에 수용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들이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의 난민위원회(Refugee Council)도 난민들의 안전과 후원

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수준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 제도는 어떠한 확실한 점검이나 훈련 또는 사회복지사의 배치도 없이 위탁 보호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며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는 그에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이 영국에서 삶을 재건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위해 지역 보건, 정신 건강 서비스 및 학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푸틴 지지' 키릴 총대주교 때문에... 세계정교회 분열 조짐



키릴 총대주교(Patriarch Kirill), ©WCC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키릴 총대주교가 강경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인해, 러시아정교회 뿐 아니라 세계정교회가 분열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14일 "키릴 총대주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폭적으로 축복하면서 세계정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강경한 입장이 스스로를 다른 교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키릴 총대주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원래 하나"라는 논리로 러시아의 침공을 두둔하고, 이번 사태 해결에 서방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다시 통합해 구소련의 영적 통합과 영토 확장을 연결해 '러시아 세계'를 구축하려는 푸틴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국내뿐 아니라 모스크바 총대주교청과 연결된 해외 교회들 사이에서도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에는 '러시아 평화를 위한 사제단'이라는 단체의 정교회 회원 300명 가량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살인적 명령'을 규탄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서유럽의 주교가 키릴 총대주교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으나, 키릴은 끝내 모스크바 총대주교청과 관계를 단절하고 "매우 어렵고 마음 아픈 조치"라고 했다.

앞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사무총장 직무대행인 이안 사우카 목사도 키릴 총대주교에게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키릴은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적으로 여기는 세력이 국경 가까이 왔다"며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지정학적 전략'에 개입했다"고 맞받았다.

키릴은 1950년 WCC가 발표한 '토론토 성명' 내용까지 언급하며 지나친 간섭을 경계했다.

그는 서신에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한 차례로 쓰지 않았다.

1848년 WCC 창립 이후 정체성을 규정한 토론토 성명에는 "WCC의 교회론 안에 회원 교회들이 흡수되는 게 아니다. 회원 교회들의 주장이나 결의를 다른 회원 교회가 수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키릴 총대주교는 "공동의 신앙과 공동의 성자를 기리고 공동 기도로 연합하는 등, 공동의 역사를 지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90년대까지 러시아는 안보 및 존엄성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는 세력이 우리 국경 가까이 다가왔고,

나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려를 무시한 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형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을 서로 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무기와 전투 교관을 우크라이나에 넘치게 하려고 자금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에 사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을 러시아의 적으로 재교육하려는 시도가 가장 끔찍한 무기"라고 비판했다.

키릴 총대주교는 "주님께서 하루빨리 영구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자"며 "이 기도를 전 세계 교회가 러시아정교회와 함께 나누자"고 했다.

강혜진 기자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송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트코피(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지하숙소복원과 북녘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항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원 목사(편저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북녘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기드온동족선교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영적승리를 위한 임마누엘 교회로(1)

여호수아 7:1-15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2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뵈엘 동편 뵈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 여호수아에게로...(중략)...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14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뵈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뵈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뵈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15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뵈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와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명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1. 여리고 성 함락의 교훈

여호수아 6장에서 그토록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옛새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예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칠일에는 성을 일곱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수6:2-5)”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믿되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하면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실현해 주시리라 믿어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옛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제 칠일에는 하루에 일곱 바퀴를 돌았지만 순종의 믿음으로 돌았을 때 그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어지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모시고 절대자로 섬기는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를 위한 임마누엘은 믿음과 순종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2. 여호와와의 성물을 도적질한 아간

여호수아 6:17-19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와 곳간에 들일지니라” 하셨음에도 아간이 시달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2280g) 50세겔(570g)중의 금덩이 하나를 훔쳐 자기 처소의 장막 속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언약 공동체로 맺어진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도 연대적 징벌을 내리실 수 밖에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3.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여호수아의 기도

본문 2-5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을 아이성 정탐을 위해 보내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르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라고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마소서 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기적의 승리로 우쭐하는 마음에 자신감 같은 교만으로 삼천 명쯤으로 쳐들어가게 했다가 삼십육 인쯤 전사자를 내고 도망쳐오기 바쁘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의식 속엔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며 계속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의식적 신앙심(意識的 信仰心)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아간의 범죄행각을 전혀 몰랐던 것이 큰 하근(禍根)이었습니다. 본문 6-7에서는 “여호수아가 옷을

벗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릎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던 줄을 뵈 하였나이디” 했으니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은 참패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토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문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심을 보아 산비탈 전투에서 전사하는 모습과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오는 아이군대의 모습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하고 전의(戰意)는 상실된 채 불안과 절망에 기진맥진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같은 참상(慘狀)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같이 참혹(慘酷)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적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본문 8-9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對敵)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居民)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했으니 범죄한 집단은 멸망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견잡을 수 없이 불안과 근심의 고통으로 절망(絶望)에 빠져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오프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카카오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의 최우수대학(AACU) 신학박사, 석사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간정보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학(M.A. ICS), 목회학(M.Div), 신학교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취급증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 (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l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헌정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미국연방안기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112
admin.kor@itsla.edu www.itsla.edu

■ 강준민 칼럼

좋은 만남의 축복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의 만남은 신비입니다.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찾아오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신비로운 만남을 주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된 만남을 주신해 주십니다. 좋은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 이유는 만남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남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 집니다. 만남 속에는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보자기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의 비밀스런 웃음과 풍성함은 보자기를 펼쳐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에 풍성한 축복을 선물해 줍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 줍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의 귀를 열어줍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해 줍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좋

은 만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맛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만남은 서로를 보게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을 보게 합니다. 만남을 통해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말해주고 드러내어 줄 때 우리는 삶의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좌절된 꿈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루스티 베르쿠스는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 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만남은 잠든 지성을 깨어 줍니다. 지성이 깨어나면 배움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성이 깨어나면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지성이 깨어나면 성경 속에 담긴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이 깨어나면 책을 읽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지성이 깨어나면 성스러운 호기심과 질문을 품게 됩니다. 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성이 깨어나면 그동안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지성이 깨어나면 우리 안에 잠재된 지식들이 함께 관련을 맺고 서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만남은 식은 가슴에 불을 붙여줍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감정을 회복시켜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감정의 샘을 건드려 주고, 녹여내리게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또한 꺼

져가는 등불처럼 시들시들해진 가슴에 사랑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삶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좋은 만남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이는 세계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한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만남 속에는 고통이라는 같이 감추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터질 듯한 고통 중에 터질 듯한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 버림받는 쓰라린 경험과 함께 부활의 비밀스런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가 경험한 고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흔들려 괴로웠던 고통, 이별과 실패와 가난 속에서 서러웠던 마음의 상흔(傷痕)을 아름답다고 말해줍니다. 구광본 시인은 이런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오래 흔들렸으므로 너는 아름답다. 오래 서러웠으므로 너는 아름답다.” 좋은 만남은 흔들림과 서러움마저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상처 속에 감추인 아름다움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진주를 보도록 눈을 열어줍니다. 이런 고상한 만남을 체험하고 나면 모든 세계가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밝은 태양도, 눈물겨운 비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환희에 찬 만남도, 쓰라린 이별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좋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좋은 만남을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좋은 만남이 찾아오면 좋은 만남을 잘 가꾸도록 하십시오. 좋은 만남이 찾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좋은 만남을 잘 가꾸는 것은 지혜입니다. 좋은 만남을 잘 가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좋은 만남의 혜택을 누렸다면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 주십시오.

가장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디 좋은 만남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 길에 오아시스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연재 '꿇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죽선교
박상원 목사

네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어느 날 동료한테서 다윗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내가 다윗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라는 생각

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심지어 그 부하를 적진에서 죽게 만들었잖나?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찬하셨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나한테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지?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해도 되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소극파의 한 동료가 내게 질문했다. “그럼 자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리고 다윗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했다네” 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것이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는 것인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당 간부들이 약탈한 하나님의 재산을 도로 찾았을 뿐이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적질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게. 하나님이 분명히 도적질을 명령하셨네.”

“그 명령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신 명령이지, 자네에게 한 명령이 아니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노동당 놈들은 아말렉보다 더 악한 놈들 일세. 그러니 당연히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마땅하네.” “지금 자네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는가? 도적질하려는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살인자의 피가 묻어 있네. 하나님은 자네의 탐심과 더러운 피를 결코 달가워하시지 않을 걸세.” 나는 의로운 일이라 생각해서 한 일을 그는 도적질이며 살인이라 하고, 더구나 하나님이 좋

아하시지 않는다고 하니,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충격에 휩싸였다. “자네가 다윗과 다른 점이 뭘 줄 아는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했다네. 그런데 자네는 어떤가? 자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도적질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칭송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걸세. 자네는 자네의 생각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www.newstarrealty.com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사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 전지역

New Star Carol 뉴스타 캐롤 리

최고의 투자는 아파트/유닛입니다!! 지역 좋고 가격 좋고 렌트 잘 나오는 유닛을 소개합니다

사이프러스 **특점**

모빌홈 \$12만

방3화2 건평 약 1100SF
최고학군 최고 위치
스페이스 렌트 약 \$1,900

부에나팍 \$95만 **HOT!**

방3, 화2 건평 약 1500 SF
단층 편리한 교통
쓰스물 도보거리
투자자 환영,
렌트 \$3,000 받을 수 있는 곳

몽고리안 바베큐 \$32만

랜초몰내 매우 바쁜 지역
꼭 관심있는 분만
전화주세요^^

롱비치 보바샵 \$15만

매우 좋은 지역에 위치
절호의 찬스!

부에나팍 깨끗한 단층 \$67만

방2화2 건평 약 1,200SF
대지 6,000SF
넓은 실내구조, 뉴클링된
편리한 교통, 소스물 푸근

라미라다 단층 \$75만

방4화3 건평 약 1,900SF
대지 8,750SF 별도 뒷에 밭 1화1
약 616SF 자체 게이트 풀장,
파티오, 뉴레인트 & 카펫

라팔마 코너유닛 이중집 \$87만

방4화2.5 건평 약 2,100SF
대지 10,000SF 광범위한
실내 인테리어, 하이 킬링
풀 & 스파, 옥스포드학군

라미라다 79만

방4화2 단층
건평 약 1400 SF
부에나팍 한타 5분
최고지역에
평화로운 지역

부에나팍 \$120만

방4화3, 건평 약 2400 sf.
포텐셜 방2개 추가 피피
쓰스물 도보, 새지붕 새메인트
완전 리모델링된 집

코로나 3유닛 \$98만

방3화3
하이포텐셜! 최고지역!

센버나디노 4유닛 \$90만

방4화3
완전 리모델링

포모나 2유닛 70만

방2화2
완전 리모델링

폰타나 3유닛 72만

방3화3
완전 리모델링

산타애나 11유닛 380만

4개의 방 2화1.5
타운홀스타일, 리모델링
월임 \$14,000
프라이빗로케이션

애나하임 25유닛 \$600만

17개 방 1화1
8개 방 2화1
월임 \$23,000

애나하임 8유닛 \$380만

월임 \$16,500

케롤리의 커머셜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

많은 문의 바랍니다

샌버나디노 상가 빌딩 2채 \$250만

방3화3
완전 리모델링

라팔마 메디컬센터내 스페이스 렌트

방3화3
완전 리모델링

2020년 **다수 수상**

케롤 리

DRE 01966905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arole Lee Realtor®
Cell 714.345.4989

- 현 오렌지북부한인회 회장
- 뉴스타장학재단 이사겸 심사위원
- 뉴스타부동산 뉴에이전트 특강강사
- 사이프러스 25년 거주
- UCI 졸업 ● 확실한 1.5세
- Million Dollar Club
- 라디오서울 1650 AM 부동산정보
- 한국일보 중앙일보 부동산 칼럼 0.562.824.4989

★ 주택 / 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 리스팅 전문,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에이전트 케롤 리 ★

염려를 회개하라

오늘 제 3차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 34명이 떠납니다. 어려운 지역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도 단기선교를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그 기간 동안은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 나라면 일어나고, 밥도 주는 대로 먹고, 일도 함께 하기에, 나는 순종만 결정하고 맡기면 이것 저것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앵고 거두지도 앵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6:26)

지구상에 사는 조류가 약 1000억 마리가 있는데, 그 새들이 매일 잘 먹고 삽니다. 제

비에 대해서 어느 교수가 연구한 자료를 보니, 제비는 수놈과 암놈이 번갈아가면서 하루 100번 이상 곤충을 잡아다가 새끼에게 갖다 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잡아 7000마리의 곤충을 새끼에게 먹이는 것이고, 새끼를 키우는 3주간 동안에는 무려 15만 마리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가 어디 한 두 마리뿐입니까? 모든 날짐승을 다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에 있는 모든 풀도 다 키우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죽음의 값으로 구원한 귀한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비행사가 비행한 지 두 시간가량이 되었을 때, 기체에 서 나는 소음을 들었는데, 쥐가 무엇을 잡아 먹는 소리였습니다. 쥐의 날카로운 이빨이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정밀한 기체를 얼마나 잡아먹을지를 몰라 그는 몹시 두려운 생각에 잠겼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떠나온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데도 두 시간이 소요되고 앞으로 착륙할 지점에 도착하는 데도 두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설치동물인 쥐는 높은 곳에서 적응력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천 피트씩 상공으로, 고공 2만 피트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쥐가 잡아먹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두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안전하게 착륙하였을 때 기체의 구멍에 죽어 있는 쥐를 발견하였습니다.

염려는 마치 쥐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와 예배를 통해 염려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550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죄란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성격이 예민해서 염려가 많은 것이라고 하지 말고, ‘염려를 하면 죄다.’라고 접근해야 합니다. 염려를 죄로 깨달아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염려를 넘어서는 승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로남불의 딜레마

교수들이 투표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 중에 ‘후안무치(厚顔無恥-낮이 뜨거워 부끄러움을 모른다)’, ‘격화소양(隔靴搔癢-신발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를 제치고 1등으로 뽑힌 것이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였다고 합니다. 아시타비의 순 한국말이 바로 ‘내로남불’이며, 사실 이제 이 말은 국제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고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고 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기록한 후 ‘if they do it, it’s a romance if others do it, they call it an extramarital affair’이라는 설명까지 붙였습니다. ‘내가 하면 로

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쓰였길래 한 해를 가능하는 사자성어에 등장하고, 급기야 외국 신문에까지 회자되는 국제어가 되었습니다. 로맨스와 스캔들의 차이를 두고 남한테 안 들리면 로맨스이고, 들리면 스캔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폭탄을 터뜨리는 러시아는 침략의 속내를 들켜 버린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내로남불은 성경에도 버젓이 나와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하면 의롭고 남이 하면 자랑한다고 하며, 내가 하면 박수 받을 일이고 남이 하면 비판할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성향 때문에 구분



김 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되었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파루쉬’에서 ‘바리새’라는 말이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남이 듣도록 이렇

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더구나 이 세리라도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비교하지 않고 아니, 그들과 비교할 여유도 없이 하늘을 향해 눈도 들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을 향해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라 조롱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시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눅 18장) 행동을 구별되게 하는 의로움은 마음의 반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내로남불의 속내가 들켜 버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혐오하는 세리들과 비교당한 것도 몹시 불쾌한데 그것도 모자라 세리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고 속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마 5:20)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역시 바리새인의 습관처럼 내가 못하면 회개하는 세리가 되고, 내가 좀 하면 의로운 바리새인이 되어 버리는 또 다른 내로남불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 #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ge	\$300,000		\$500,000		\$1,000,000		Age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월 보험료/사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증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앞서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멧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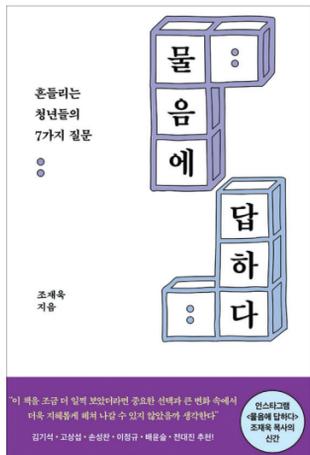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인스타그램 [물음에 답하다] 조재욱 목사의 신간

“흔들리는 청년들의 7가지 질문” 물음에 답하다



두란노서원이 조재욱 목사(‘물음에 답하다’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의 신간 <물음에 답하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청년들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통하면서 청년들의 신앙과 삶의 물음에 답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아냈다.

고단한 현실을 사는 청년들이 한 번쯤은 던졌을 질문들은 ‘자아, 꿈, 자유, 사랑, 인간관계, 정의, 죽음’이며 저자는 이에 대해 청년들이 주로 팔로우하고 이용하는 SNS에 답변을 하며 소통하고 있다.

저자 조재욱 목사는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깨달았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찾고 있는 것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엔 몇 가지 주제들로 묶을 수 있었다. 나는 오랜 시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또한 현대 사람들이 잃어버린 채 찾고 있는 각각의 문제들에 기독교가 어떤 대답을 주는지를 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현재 SNS에서 4만 5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넘어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결실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는 “오래 살아도 여전히 인

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은 한편으로 어딘가 허무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내 인생과 나를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걸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맞는 삶은 무엇이고,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까? 인생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과 같은 막막함과 불안감이 휩싸인다. 그래서일까 이런 막막함과 불안감 속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의 길을 알려 주기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을 향해 끊임없이 뭔가를 물으며 확인받고 싶어 한다”라고 했다.

이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오직 자신을 낳아 준 권위자인 부모를 통해서만 자신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 줄 때 아이는 그 말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간다. 우리가 우연히 생긴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분의 자녀라면 내가 나를 알고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다. 나를 만든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우연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내 안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다. 이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오는 갈증과 해답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 내거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체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잘 섭취해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주어져야만 한다. 성경은 이를 빛이라고 말한다”라고 했다.

저자는 이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상태에서도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링으로 들어가는 복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사람들은 각자의 링 위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 가면서도, 그곳에 있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기에 다시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죽음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메꾸기 위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가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음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며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비로소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끝으로 조 목사는 “오늘날 사람들은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없는 게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영원하신 분을 잃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을 떠나 그 자리를 세상의 유한한 것들로 메꾸려 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었다. 돈도,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죽음 앞에선 의미를 잃는다. 결국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이 아니고선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의 의미를 줄 수 없다.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조재욱
두란노 | 236쪽

‘자아, 꿈, 자유, 사랑, 인간관계, 정의, 죽음’에 대한 청년들의 물음에 복음으로 답하다!

[신간]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규장문화사가 홍민기 목사(청년목회자자녀공동체 지도 목사)의 신간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보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잡기 위한 10가지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훈련 지침과 조언을 이 책에 담아냈다.

저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쁘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같이 여겨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상황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상황에 끌려다닌다. 하나님 중심

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세상, 즉 교회와 세상과 직장과 가정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등장하는 무대로 펼쳐져야 하는데, 거꾸로 시시각각 벌어지는 상황에 끌려다니고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인생이 단순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라진다”라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세웠다면, 스케줄에도 그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했다.

저자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세상과 싸울 수 있다. 우리의 공동체가 안전한 곳이 되어야 세상과 맞서서 대항할 수 있다”라며 “안식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일은 스스로 자신에게 힐링을 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힐링을 맞보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날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우리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타며 살아간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사실은 바쁘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보며 바쁘고 혼란스러운 이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내면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 인생의 방향을 바꾸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홍민기 목사는 미국 고든대학교에서 청소년 사역과 성서학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영성교육학을 전공했다. 현재 브리지임팩트 사역원 이사장이자 청년목회자자녀공동체(WPK)의 지도



목사로서 다음세대 부흥에 힘쓰는 한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시작하여 현재 서울, 댈러스를 비롯해 열한 곳에 교회를 개척했다.

최승연 기자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사는...

-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동환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 책임** 마동환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받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동환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공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동환사법률 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 실력** 마동환사그룹의 오랜 경험은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동환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전) Good Hands Organization 이사장

대면/전화상담예약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700 S. Flower St., STE 1000 Los Angeles, CA 90017
3435 Wilshire Blye STE 2700 Los Angeles, CA 90010

“새 장소 이전”
E-mail: marhlaw@yahoo.com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上)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메시지와 서사의 모순과 반작용

수학 교육 '공식' 암기와 안전한 해법 비판하지만, 이런 종류의 영화 가장 안전한 흥행 '공식' 만 따라 두 주인공 관계, <굿 윌 헌팅> 등 그대로 떠올라 교육 현실 비판, 과장되거나, 편향되거나, 단편적

◆수학과 창의성: 서사의 창의성 없이 수학의 창의성을 역설하는 모순

지난 3월 9일 개봉된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 메시지 자체는 무난하고, 요소요소 감동적인 장면들도 있어 나쁘지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현실 비판과 관련해 이 영화가 채택한 서사 전개 방식은, 아쉽게도 창의성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종류의 영화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흥행 공식만 따라가려는 태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영화의 주된 메시지는 증명 노력 없이 암기한 공식과 이전 시험에서 검증된 안전한 해법만을 가르쳐 빠르게 고득점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철학 없는 수학 교육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채택된 영화의 연출 방식은 이미 해외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 안전한 흥행 공식에만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영화의 메시지와 서사 전개 태도가 서로 정확하게 모순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점이 영화의 매력과 감동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서사의 핵심을 이루는 두 주인공 이학성(최민식 분)과 한지우(김동휘 분)의 관계 설정이 과도하게 이상하다. 이와 비슷한 류의 작품은 이미 해외에서 여러 차례 제작되고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한편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갖추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은둔자의 삶을 살아가는 연구자나 작가, 예술가가 있고, 그 상대편에는 재능이 있고 선량하지만 교육 시스템의 부조리로 인해 고통당하는 학생이 있다.

이런 양측의 만남을 다룬 영화들, 대표적으로 <굿 윌 헌팅>

(1998)과 <파인딩 포레스터>(2000)의 설정들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 그대로 채택되었다.

능력을 숨기고 학교의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직원 이학성과 재능 있는 학생 한지우의 만남이라는 설정은 <굿 윌 헌팅>로부터, 그리고 한지우가 갖고 있던 수학 문제를 이학성이 우연하게 풀어내는 설정은 <파인딩 포레스터>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넘겨쳐 않은 형편의 가정에서 어렵사리 명문 자사고에 입학했지만 친구들의 밀탈에 결부된데다, 교사들의 편견과 오해로 인해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고 퇴학 위기를 맞는 한지우의 위기 상황은 영화 <여인의 향기>(1992)에서 차용한 모티프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 출신의 뛰어난 수학 연구자 이학성이 한지우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 즉 당장 성적을 올리는 교육이 아니라 수의 신비한 원리에 관심을 갖고 수리(數理)와 친해지도록 교육하는 방식은 여러 모로 일본의 수학관련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2006)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많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이렇게 해외에서 흥행한 작품들의 성공 공식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그려져려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게 버무려 놓았다. 그래서 서사 전개 방식이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익숙한 대신, 창의적인 임팩트는 미약한 교육 현실 비판 영화로 남고 말았다.

◆수학과 경쟁: 입시 위주의 경쟁적 주입식 교육은 절대악인가?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전하는 것 같은 교육현실 비판 메시지가 한국 영화계에 본격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 강우석 감독의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1989)가 제작, 개봉된 시점이



한국의 입시위주 무한경쟁 교육의 폐해를 비판하는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그 이전까지 한국 영화 속에서 공교육 현장은 나라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숭고하고 활기찬 현장으로 주로 비춰졌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고교야개> 시리즈로 대표되는 소위 '하이틴 영화'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활기차고 희망적인 것으로 그려내는 데 여념이 없었다. 당시는 미디어에 대한 감시가 엄중하던 개발독재 시대였다.

따라서 영화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이에 따라 영화 속 교육현장이 그렇게 밝고 희망차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후 <꽃피부터 일등까지 우리반을 찾습니다>(1990), <비트>(1997), <여고괴담>(1998), <친구>(2001), <말죽거리 잔혹사>(2004) 같은 영화들이 성적 스트레스, 교사들의 과도한 폭행, 학생들 사이의 잔혹한 폭력으로 얼룩진 암울한 공교육 현장을 그려냈다.

이렇게 한국 공교육의 획일적 교육방식과 교육 현장의 억압적 분위기에 대한 영화계의 시각이 크게 바뀌게 된 데는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건 진보 계열 예술인들과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목소리가 크게 기여했다.

학습 현장에서 전체주의와 폭력에 의한 위압을 제거하려 노력한 이들의 움직임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영화 속 교육 현실 비판은 여전히 과장되거나, 편향되거나, 단편적이다.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진보적 이상만 외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덕분에 나라의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입시 위주의 주입식 수학교육을 한 수학 천재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원래 수학은 종교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했다. 고대 서구 기하학과 음악이론을 정립한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라기보다는 원래 철학을 깊이 연마한 종교 지도자였다. 그는 세계의 존재 원리가 신의 섭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신의 섭리는 수리로 표현되고 치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훗날 이런 믿음은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쳐, 근대에는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케플러, 뉴턴 등에게, 현대에는 베르그송, 러셀, 프레게, 화이트헤드 등에게 계승되어 현대 수학철학으로 발전되었다.

즉 수학은 원래 신의 섭리와 존재의 진리를 깊이 탐구하려 했던 종교철학자들의 중요한 사유 도구였던 것이다. 오늘날의 수학 연구에는 종교적인 동기나 의미는 희박해졌지만, 존재의 진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심오한 수학철학적, 과학철학적 동기와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수학 연구

는 현실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첫째, 대학원 이상 수준에서의 수학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둘째, 천재 수학자 폰 노이만이나 오펜하이머처럼 아예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영재 교육을 받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 고등학생 수준에서 '수와 친해지면서', '공식이 아닌 원리를 파헤치며', 수학을 학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이처럼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수학 접근법을 독려하면서 오늘날 입시 위주, 문제풀이 위주 경쟁에 치우친 수학 교육을 비판한다.

여기에는 과거 한국의 교육 정책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던 근대의 기독교적 교육방식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독려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공교육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을 독려하다 못해 인성마저 저버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은 분명 필요하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와 같이 오늘날 한국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영화들의 메시지는 대안이 없이, 오로지 비판 자체를 위한 비판으로 그치고 만다.

이러한 점은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OPEN 23주년 기념 세일



리모델링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단독주택에 ADU
Second Unit 건축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Water Damage
보수공사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Solar팀, Roofing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ucco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Solar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20% 이상 절약**이 됩니다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LA (213)500-8000 3400 W Olympic Blvd., #204, L.A, CA 90019 (구, 로랜드 빌딩)

OC (714)294-4336 8251 Roland St., #E, Buena Park, CA 90621

https://abundancedesignandconstruction.com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